

# 농업 동향

## 축산업 허가제 시행 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2012. 2. 22 개정, 2013. 2. 23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은 2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 미만, 돼지 50㎡ 이상~2,000㎡ 미만)는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 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 이하(사육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

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의 도입 첫 해인 2012년도에 2030세대 2,164명을 대상으로 총 2,030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신규 창업농의 농지확보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고, 기존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 본 사업은 농지마련이 어려운 30대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영농의욕이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 이들의 영농계획에 부합되는 농지를 5년간 최대 5ha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2030세대 2,164명은 기존 농업인 2,080명과 신규 창업농(귀농인 포함)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농지 2,030ha는 2012년도 농지은행을 통한 전체 농지 지원 면적 13,697ha의 15%에 해당된다.

금년도에는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400ha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1천여명의 젊은 농업인을 신규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맞는 희망농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까지 「2030세대 농지지원」 선정자는 2,162명이다(2012년 : 1,106명, 2013년 : 1,056명).

내년도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는 금년 11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를 통해 문의(1577-7770, [www.fbo.or.kr](http://www.fbo.or.kr))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3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 2개소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대상지역으로 임실과 담양 2개소를 선정했다. 2013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2개 단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평가, 3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친환경농업 추진체계와 생산·유통계획 및 사전준비 등 사업추진 여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대규모의 자원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3개소를 시범시작으로 2013년까지 44개소가 선정되었다. 자원순환형 단지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 하여 경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다.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단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개소 당 100억원이다. 지원되는 시설로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친환경농축산물생산자재,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미생물배양시설, 친환경교육·체험시설 등으로 단지 여건에 맞게 설치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단지별 여건에 맞는 컨설팅(자문)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선정단지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농가 수, 인증면적, 화학비료 감축목표 등 단지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을 내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자율사업으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포괄보조제도(사업간 유사중복, 지자체 자율권 침해, 소규모 분산투자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하여 200여개 사업을 22개로 통합)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보조제도 시행은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점읍면 및 마을의 정주여건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유형은 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②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③ 신규마을조성사업, ④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재생을 위하여 생활권·영농권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생활환경 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우려 속에서도 귀농·귀촌이 늘고 마을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43개소, 강원 88개소, 충북 97개소, 충남 152개소, 전북 152개소, 전남 240개소, 경북 196개소, 경남 169개소, 제주 25개소 수준이다.

2014년부터는 2013년과는 달리 시·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동 지역까지 포함한 읍면(동) 종합정비사업과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새롭게 신청 받는 등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 인증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민이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 스마트폰 앱(농식품안심이)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 유기 가공·전통식품 등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GAP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생산자단체 및 인증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유기 가공·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인증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농관원에서 선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 대한 소개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스타팜 농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날아라 구별이)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농식품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애플 앱스토어(앱 검색어:농식품안심이, 농식품, 안심이, 농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별이, 인증, 농산물인증, 우수음식점, 스타팜)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GAP 등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 중요농업유산 1·2호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조

상의 예지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 유산(遺産)을 유지·보전·활용하기 위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각각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국가농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64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및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역사적·생태적 가치성, 지역사회 파트너십,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효과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심사하였다.

국가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은 전통논과 유사한 구들장을 통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바닥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진흙으로 틈새를 메운 후 흙을 덮어서 만든 논이다. 경지면적이 작고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한 청산도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들의 애환과 지혜가 담겨 있다.

국가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2만2천여 km에 달하는 밭 주변의 담으로서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제주 돌담을 ‘세계적인 명물’로 예찬한 바 있다. 제주 돌담은 외담(한줄 담), 겹담(두줄 담), 잣백담(넓게 쌓은 담)이 있으며, 밭 돌담은 바람이 많은 제주 기후로부터 작물보호, 토양과 씨앗의 비산 방지, 우마들의 농경지 침입방지 및 소유지의 구획을 위하여 고려시대 고종 때부터 형성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다원적 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전통 유산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농어업 유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지정된 국가유산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